

# 2019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659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19년 5월 23일
4.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 II.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 제안이유

- 법정의무경비 정산과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 등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 2.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8조 6,796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5조 8,139억 1천 8백만원에

대비하여 8.0%(2조 8,656억 9천 2백만원)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조 8,156억 4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2조 6,174억 4천 2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조 8,639억 6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482억 5천만원) 증가하였음.

〈표1〉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38,679,610	35,813,918	2,865,692	8.0
일 반 회 계	26,815,641	24,198,199	2,617,442	10.8
특 별 회 계	11,863,969	11,615,719	248,250	2.1

### 3.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당초 243억 9천 5백만원 대비 97억 1천1백만원 증가한 341억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총 3건, 2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3건, 94억 9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총 세출은 당초 1,582억 3천만원에서 243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한 1,826억 1천 2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2〉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182,612	158,230	24,382	15.4
일 반 회 계	행정운영경비	286	286	-	-
	재 무 활 동	43,000	43,000	-	-
	사 업 비	139,326	114,944	24,382	21.2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9억 1천 8백만원
-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1억 9천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47억 9천 9백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55억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10억원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20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53억 8천 6백만원 등

16개 사업에서 255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공유키친사업 6억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5억 6천 7백만원 등

2개 사업에서 11억 6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Ⅲ.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세 입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당초 243억 9천 5백만원 대비 97억 1천 1백만원 증가한 341억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 국고보조금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2억 8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지역특화) 1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되고,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서  
1억 8천 9백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3건에서 2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36억 7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인건비창출) 40억 3천 9백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7억 8천 5백만원으로  
총 4건에서 94억 9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표3〉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노동민생정책관	34,106,159	24,395,069	9,711,090
소 계(총 6건)	29,198,000	19,486,910	9,711,090
국고보조금	2,815,000	2,598,000	217,00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2,100,000	1,820,000	280,00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역특화)	418,000	292,000	126,000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297,000	486,000	△ 189,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6,383,000	16,888,910	9,494,09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10,506,000	6,467,000	4,039,00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3,237,000	9,566,910	3,670,09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2,640,000	855,000	1,785,000

- 국고보조금 감액은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난해 사업 시행이 늦어져 관련 예산이 명시이월됨에 따라 국비 편성이 감소하였음.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의 경우, 대상 시장이 지난해 본예산 편성 후, 선정되어 이에 대한 매칭 사업비가 교부된 것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의 경우 2019년 예산의 부족이 예상되어, 고용노동부에 사업비 지원 요청에 따라 추가 교부된 가내시액임.

- 이번 추경안의 세입예산은 부정확한 세입 추계나 결산 착오가 아닌,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으로 볼 수 있음.

## 나. 세 출

- 세출예산은 1,826억 1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3억 8천 2백 만원이 증액(15.4%)되었음.
  - 이 중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서 255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유키친사업 등 2개 사업에서 11억 6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으로 20억원이 순증되었고, 공유키친사업 추진은 폐지되어 기정예산 6억원 전액이 순감되었음.

### 〈표4〉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총 18개 사업	(x29,456,957) 71,021,503	(x19,745,867) 46,639,696	(x9,711,090) 24,381,807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620,000	350,000	270,000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5,773,162	4,854,500	918,662
서울형 좋은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490,000	300,000	190,000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	2,281,000	2,256,000	25,000

사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685,350	456,000	229,350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2,000,000	-	2,000,000
공유키친사업 추진	-	600,000	△600,00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x13,237,000) 17,555,646	(x9,566,910) 12,756,851	(x3,670,090) 4,798,795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x258,957) 7,665,015	(x258,957) 2,165,015	5,500,000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492,000	1,791,000	701,000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4,940,000	4,240,000	700,000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2,940,000	1,940,000	1,000,000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206,250	506,250	700,000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x297,000) 891,000	(x486,000) 1,458,000	(△189,000) △567,00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x10,506,000) 14,009,000	(x6,467,000) 8,623,000	(x4,039,000) 5,386,00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x2,100,000) 3,104,080	(x1,820,000) 2,704,080	(x280,000) 400,00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역특화)	(x418,000) 597,000	(x292,000) 418,000	(x126,000) 179,00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x855,000) 1,221,000	(x1,785,000) 2,551,000	(x2,640,000) 3,772,000

## 2. 신규/폐지 사업 검토

### 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신규, 사업별설명서 248쪽)

-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는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선정된 가게에 청년예술가를 배치, 아트마케팅<sup>1)</sup>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을 신규 편성했음.

#### 〈표5〉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000,000	(x-) 0	(x-) 2,0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2,000,000	(x-) 0	(x-) 2,000,000

- 서울시는 뉴딜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2016년 3월부터 “우리가게 전담 예술가” 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까지 93명의 청년예술가가 총 147개 가게에 아트마케팅을 지원했음.
- 우리동네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면, 청년예술가의 약 77%가 만족을 표했으며, 대상 가게 또한 전문업체 대비 약 70%의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1)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등에 예술적 요소를 더한 마케팅으로, 소상공인 니즈와 이슈를 중심으로 공간 재생, 제품이미지 개발, 브랜딩 등 예술 솔루션 제시

- 2019년에는 편성한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한 바 이를 확대 추진하고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sup>2)</sup>을 신설하였음.

〈표6〉 전담예술가-아트테리어 사업 개요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19년 3월~12월</li> <li>▪ 지원대상 : 청년예술가 93명, 市소재 소상공인 가게 80여개 - 추억담긴가게 포함</li> <li>▪ 소요예산 : 8억 7,500만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19년 7월~12월</li> <li>▪ 지원대상 : 청년예술가 160명, 市소재 소상공인 가게 500여개</li> <li>▪ 소요예산 : 20억원</li> <li>▪ 추진방식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후, 자치구별 추진(10개구 선정)</li> </ul>

- 10개 자치구를 선정, 500여개의 가게를 대상으로 아트마케팅 아이템별 예술가팀을 지원할 예정으로, 약 200여명의 청년예술가 일자리 창출 효과의 발생도 기대됨.
- 지원 대상 선정은 서울시 주도 방식에서 현장과 밀접한 자치구 주도로 변경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또한 가게별·개인별에서 지역별·골목단위·전통시장단위 등으로 확대할 계획임.
- 다만 세부사업 중 ‘사업수행 우수 자치구(2개) 인센티브(2천만원)’는 사업완료 후 성과평가를 통해 지급하게 되므로, 이번 추경에 편성할 필요성이 미약함.

2) 소상공인정책담당관-5494, 2019.4.18.

### 〈표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세부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청년예술가 선발(160명) 1,680,000원*160명*4개월 = 1,075,200천원
	○ 아트마케팅 재료비 지원(500개 가게) 1,000,000원*500, 추가비용 등 = 504,800천원
	○ 자치구별 사업운영비(10개 자치구) 40,000,000원*10 = 400,000천원
	○ 사업수행 우수 자치구(2개) 추가 인센티브 10,000,000원*2 = 20,000천원
	증감사유
	- 청년예술가 신규선발 및 인건비 지급(1,075,200천원 증액) - 가게별 아트마케팅 재료비 등 지급(504,800천원 증액) - 자치구별 사업운영비 지급(400,000천원 증액) -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지급(20,000천원 증액)

#### 나. 공유키친사업 추진(폐지, 사업별설명서 252쪽)

- 공동주방 등 외식업 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창업 테스트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편성한 공유키친사업의 예산 6억원 전액을 감액하여,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음.

### 〈표8〉 공유키친 사업 추진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0	(x-) 600,000	(x-) △600,000
사무관리비	(x-) 0	(x-) 600,000	(x-) △600,000

- 이는 공유키친사업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서울창업 허브 내 '키친 인큐베이팅'과 내용이 중복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이 사업은 2019년 신규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한 방침서나 계획서가 전무한 상태에서 사업 폐지를 결정하였음.
- 회계연도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의 구체화나 사업 모델의 변경 등 사업을 시행해보고자 하는 시도조차 없이 폐지하는 것은 사업 수행에 대한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임.

### 3. 주요 사업별 검토

#### 가.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사업별설명서 229쪽)

-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2002년 8월부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위탁운영 중이며, 이번 추경을 통해 2억 7천만원을 증액함.
- 이 중 시설비(5억원)는 이전 대상지인 구(舊) 서부수도사업소 청사의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과 설계용역비(3억 5,752만원), 철거 공사비(1억 4,132만원)로 집행될 예정임.
- 이전예정 건물은 전층 리모델링과 1개 층(423.24m<sup>2</sup>)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통해 지상 6층의 총 면적 2,683.13m<sup>2</sup>로 규모가 변경될 예정임(현재 지상 4층, 총 면적 2,259.89m<sup>2</sup>, 5층 가건물).

#### 〈표9〉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620,000	(x-) 350,000	(x-) 270,000
민간위탁금	(x-) 120,000	(x-) 120,000	(x-) 0
시설비	(x-) 500,000	(x-) 230,000	(x-) 270,000

-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02년 이후 세 차례나 이전한 바 있으며, 현재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내 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이전이 불가

피한 상황으로, 2015년부터 이전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불용과 이월을 반복하며 예산을 낭비해왔음.

### 〈표10〉 최근 4년간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비 고
2015	3,630	0	3,630	120	0	3,510	민간건물 임차부진으로 미집행 예산 불용처리
2016	3,630	0	3,630	140	3,490	0	시유시설 활용계획에 따라 시설비로 전용 후 예산잔액 명시이월
2017	1,120	3,490	4,610	1,090	0	3,520	위탁기관(민주노총서울본부)과 증축 및 리모델링 규모 협의를 하였으나, 위탁기관에서 2018년 이후 재협의를 할 것을 요청하여 불용처리
2018	120	0	120	90	0	30	현 건물에 대한 관리비만 편성

- 따라서 더 이상의 예산 낭비가 없도록,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조속히 이전해야 할 것이며, 또 다시 이전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한편 서울시의회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조례상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정비하면서 ‘강북근로자복지관’의 명칭은 ‘강북노동자복지관’으로 변경한 바 있어, 이 사업의 사업명 등에서 ‘근로’ 용어를 변경했어야 함.

나.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사업별설명서 245쪽)

-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보험<sup>3)</sup> 가입을 장려하고자, 2019년부터 1인 자영업자에 한해, 기준보수등급과 무관하게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sup>4)</sup>을 운영 중임.

〈표11〉 2019년 기준보수 등급별 고용보험료

(단위 : 원, 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	910,000	1,040,000	1,170,000	1,300,000	1,430,000	1,560,000	1,69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	-	-
서울시 지원액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610	22,815
자영업자 부담액	8,190	9,360	21,060	23,400	45,045	48,590	53,235

- 당초 1~4등급 가입자만을 지원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2018.12.) 결과, 지원 대상이 전 등급으로 확대되어 현재 예산으로는 목표 인원(4천명) 중 2,320명(58%) 정도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임.

3)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제도는 50명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하며, 가입자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지원을 받게 됨.

4)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1~2등급 :50%, 3~4등급 30% 차등지원)과 중복수혜 가능

- 이에 따라 목표인원의 85%인 3,400명 이상의 지원을 위한 추가예산을 확보하고자 당초예산 대비 2억 2,935만원 증가한 6억 8,535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음.

**〈표12〉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685,350	(x-) 456,000	(x-) 229,350
사무관리비	(x-) 35,000	(x-) 10,000	(x-) 25,000
사회보장적수혜금	(x-) 685,350	(x-) 446,000	(x-) 204,350

-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노동자 가입률(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sup>5)</sup>인 바,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됨.

**다.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별설명서 233쪽)**

-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구제와 노동권의 개선을 위해 10개 자치구<sup>6)</sup>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舊 노동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번 추경안을 통해 9억 1,866만원을 증액하고자 함.

5)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복지공단

6)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강서, 광진, 관악, 양천, 강동 (중구, 중랑구 개소예정)

### 〈표13〉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5,773,162	(x-) 4,854,500	(x-) 918,662
사무관리비	(x-) 80,000	(x-) 0	(x-) 80,000
민간위탁금	(x-) 838,662	(x-) 0	(x-) 838,66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4,854,500	(x-) 4,854,500	(x-) 0

- 서울시는 지역별 노동복지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센터 미설치 지역과 노동수요가 높은 지역에 권역별 센터 2개소(도심권, 동남권)를 신설할 예정이다.

### 〈표14〉 도심권, 동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개요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종로구 을곡로 56 (운현하늘 빌딩 10층)</li> <li>▪ 규모 : 264.46㎡ (전용 약 54평)</li> <li>▪ 임차료 : 보증금 3억원/월 66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송파구 올림픽로 100 (효창타워 5층)</li> <li>▪ 규모 : 207.9㎡ (전용 약 34평)</li> <li>▪ 임차료 : 보증금 3,500만원/월 465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세미나, 지역 노동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을 위한 공용 공간 조성</li> <li>- 각종 행사시 공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가변형으로 구성</li> </ul> </li> <li>▪ 지원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간 연계 및 사업추진</li> <li>-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교육</li> <li>- 노동조합 설립지원 등을 통한 노동권익보호 사업</li> <li>- 문화·복지·취업지원·산업안전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li> </ul> </li> </ul>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임대보증금과 계약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천만원, 인건비·관리운영비·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8억 3,866만원이며,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15〉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2개 시설 임대보증금 및 계약수수료 등 80,000,000원	= 80,000천원
	증감사유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 임대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 간 위 탁 금	○ 인건비(6명 기준) 22,033,800원 * 5개월 * 2개소	=	220,338천원
	○ 관리운영비(임대료, 공과금 등) 16,452,500원 * 5개월 * 2개소	=	164,525천원
	○ 시설유지보수(리모델링 등) 100,000,000원 * 2개소	=	200,000천원
	○ 사업비 30,000,000원 * 4개월 * 2개소	=	240,000천원
	○ 자산취득비(2개소)	=	13,799천원
증감사유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민간위탁)			

- 두 센터는 위치와 면적, 임차료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바, 예산 산출 및 편성의 정확도에 대한 의문이 듭.
-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5항<sup>7)</sup>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동의안과 추경안이 함께 제출된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종로구와 송파구에 설치되는 이번 권역별 센터는 전액 시비로 조성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바, 서울시의 노동존중 시책에 선도적으로 동조하여 자체 예산으로 센터를 조성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논란이

7)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기될 수 있음.

#### 라. 서울형 좋은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사업별설명서 237쪽)

- 서울시는 선도적 노동정책을 추진 중인 국내·외 도시정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도시정부 협의체”의 구성을 위해, 기정예산 (3억원) 대비 1억 9천만원 증가한 4억 9천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음.

#### 〈표16〉 서울형 좋은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490,000	(x-) 300,000	(x-) 190,000
사무관리비	(x-) 90,000	(x-) 30,000	(x-) 60,000
행사운영비	(x-) 400,000	(x-) 270,000	(x-) 130,000

-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포럼”을 통해, 국제 도시 간 노동정책의 공유와 협력의 장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포럼에서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이하 “도시협의체”)”의 창립을 발의했음.
- 도시협의체는 ILO 좋은 일자리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노동 개발, 도시정부간 정책 공유와 확산을 통한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마련, 포럼의 정례화와 분야별 집중 세미나 개최 등의 기능을 할 예정임.

-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창립 예정인 도시협의회 준비를 위한 사무국 설치 비용인 6천만원(사무관리비)과 초청도시 확대에 따른 행사 운영비 1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음.

〈표17〉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도시협의회 사무국 설치비용(사무집기 등) 20,000,000원*1식 = 20,000천원
	○ 인건비 (7~12월, 2인) 25,000,000원*1인 + 15,000,000원*1인 = 40,000천원
	증감사유
행사운영비	○ 도시협의회 사무국(7월) 개소를 위한 사무집기(컴퓨터, 책상, 복합기 등) 비용 및 공사비용 ○ 인건비 2인 : (정) 25,000천원 (부) 15,000천원
	○ 초청도시 확대(15개 → 45개)에 따른 초청비용증가 130,000,000원 = 130,000천원
	증감사유
	○ 주요 증가항목 - 항공료 : 70,000천원('18)→ 140,000천원('19) - 숙박비 : 14,000천원('18)→ 30,000천원('19) - 식음료 : 17,000천원('18)→ 40,000천원('19)

- 서울시는 도시협의회 사무국을 서울시립대 내 100주년기념관으로 계획하고 있어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나, 추경안에는 사무집기 비용과 공사비용만을 산출하고 있어 임대료를 추가 편성해야 할 것임.
- 12월에 창립될 도시협의회 준비를 위한 사무국 설치와 행사 운영비의 증액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업의 예산 또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획성 없이 추경을 통해 부족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폐단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마. 전통시장 지원 사업(사업별설명서 254-275쪽)**

- 서울시는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5개 사업에 걸쳐 모두 127억원이 증액되었음.

**〈표18〉 전통시장 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총 5개 사업	(x13,495,957) 35,592,661	(x9,825,867) 22,892,866	(x3,670,090) 12,699,79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x13,237,000) 17,555,646	(x9,566,910) 12,756,851	(x3,670,090) 4,798,795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x258,957) 7,665,015	(x258,957) 2,165,015	5,500,000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492,000	1,791,000	701,000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4,940,000	4,240,000	700,000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2,940,000	1,940,000	1,000,000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정부의 2019년 지원대상 시장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대응 비용을 예산으로 추가 편성한 것임.

-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케이드 등 상업기반시설(국비 6:시·구비 3:민간 1), 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국비 6:시·구비 4) 개선을 통한 시장환경 개선과 안전시설의 설치·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안은 기정예산 편성 후인 2018년 11월에 최종 확정된 신사시장 아케이드 설치, 용담상가시장 고객센터 건립 등 총 44개소의 사업에 대한 예산임.
-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5월 주차장 건립에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등 5개 시장, 주차장 개보수에 강서구 송화벽화시장 등 3개 시장, 공공·사설주차장 이용보조에 종로구 세운상가 등 11개 시장이 선정되어, 국비 매칭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임.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sup>8)</sup>은 특성화 첫걸음시장이었던 뚝섬역 상점가 등 3개 시장<sup>9)</sup>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 선정되고, 성대전통시장 등 6개 시장<sup>10)</sup>이 신규지정(2019.5)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음.
-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은 성북구 길음시장 내 천장천막 방염재질 교체, 은평구 대림시장 건물외벽균열 보수·보강, 종로구 광장골목시장 불량 아케이드 보수 등 7억원을 추가 편성했음.

8) 시장별 특성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여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 지역선도형)’와 기초역량 미비시장을 위한 컨설팅, 기초역량을 보유한 시장에 기반을 조성해주는 ‘특성화 첫걸음 시장’ 과 ‘지역시장 특성화 지원’으로 구분됨.

9) 뚝섬역상점가(성동), 화곡본동시장(강서), 고척근린시장(구로)

10) 문화관광형 : 동부골목(중랑), 방학동도깨비(도봉), 성대전통(동작)

특성화첫걸음(기반조성) : 연서(은평), 용문전통(용산), 화곡중앙골목(강서)

- 이는 전통시장의 전기·화재·위험시설물 등에 대해 시급히 정비해야 할 대상 시장을 조사<sup>11)</sup>하여 반영한 것임.
-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주차장 건립, 고객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전통시장이 육성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이밖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은 추석 명절과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 추진, 제로페이 홍보비로 10억원의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음.
-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시, 제로페이 사용 고객을 위한 홍보용품 제작 비용으로 5억원(사무관리비), 우리동네 시장나들이와 홍보에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19〉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940,000	(x-) 1,940,000	(x-) 1,000,000
사무관리비	(x-) 550,000	(x-) 50,000	(x-) 5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2,390,000	(x-) 1,890,000	(x-) 500,000

11) 행정1·2부시장 주재 안전대책회의(2019.3.22.)

## 〈표20〉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 무 관 리 비	○ 제로페이 홍보비(추석 명절 이벤트)	= 260,000천원
	-제로페이 홍보용품(장바구니 등) 제작·배포 2,000,000원*130개 시장	= 260,000천원
	○ 제로페이 홍보비(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	= 240,000천원
	-제로페이 홍보용품(장바구니 등) 제작·배포 3,000,000원*80개 시장	= 240,000천원
	증감사유	
○ 제로페이 조기 정착을 위한 다수 가맹점 확보 및 소비자 이용 확대 유도 ○ 전통시장 추석명절 이벤트 및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시 홍보용 경품 지급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 추진비 5,000,000원*80개 시장	= 400,000천원
	○ <u>청량리 일대 전통시장 활성화</u> 를 위한 <u>홍보사업</u> 100,000,000원	= 100,000천원
	증감사유	
○ '18년 시범실시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를 '19년 확대 실시한 결과, - 상반기에 참여시장과 어린이집 등 연계단체의 수요급증 및 사업효과 우수하여 '19년 하반기 참여시장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예산 필요 - 추진실적 : '18년 48개 시장, 42천명 참여/'19년 상반기 64개 시장, 73천명 참여 ※ '19년 하반기 80개 시장, 100천명 예상 ○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방영)		

- 이 중 제로페이 홍보비의 경우, 이미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제로페이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내에 제로페이 홍보물품을 추가 배포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며, 추경을 통해 증액해야 할 시급성도 공감하기 어려움.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는 전통시장을 시장 상인회와 지역공동체(어린이집·

노인정 등)가 연계하여 전통시장 맞춤형 투어,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2018년 17개구 40개 시장에 3만 6천여명이 참가했음.

- 당초 예산 12억 9천만원으로 140여개 시장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참여수요 급증으로 하반기 행사를 확대하게 되었음.
- 청량리 일대 시장 활성화 홍보비 1억원은 경동시장 중심의 다큐멘터리 제작 비용으로, 경동시장이 청량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의 시장인 만큼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바.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사업별설명서 276쪽)**

- 2017년 서울시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에 2022년까지 총 200억원의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 서울시는 2019년 기정예산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시장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며, 이번 추경예산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하 “도시재생계획”) 후속 집행사업을 위해 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음.

**〈표21〉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206,250	(x-) 506,250	(x-) 700,000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사무관리비	(x-) 56,250	(x-) 56,250	(x-)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300,000	(x-) 300,000	(x-) 0
시설비	(x-) 150,000	(x-) 150,000	(x-) 0
자치단체자본보조	(x-) 700,000	(x-) 0	(x-) 700,000

- 그러나, 지난해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도시재생계획의 준공 기한이 올 8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이들 사업을 본 예산에 편성할 여지가 충분했음.
- 이번 추경에는 도시재생계획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1시장 1특화 테마거리 조성(선도시장 테마거리 조성 등 6억원<sup>12)</sup>)’과 ‘보행네트워크 구축(경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1억원)’ 예산을 편성했음.

### 〈표22〉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치단체자본보조	○1시장 1특화 테마거리 조성사업(선도시장 테마거리 조성, 점포환경개선 사업, 시장 환경디자인 개선사업)과 보행네트워크 구축사업(경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700,000,000 = 700,000천원

12) 2019년에는 테마거리 통합 실시설계(2억 5천만원), 점포환경개선(VMD, 3억원), 시장환경 디자인 개선(아치상부 조형물 설치 및 셔터디자인 개선, 5백만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시장 1특화 테마거리 조성사업(6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시장 테마거리 조성사업(250백만원) : 통합실시설계 용역비(서울약령시 외 6개 시장)</li> <li>- 점포환경개선(VMD)사업(300백만원) : 청량리청과물시장, 청량리전통시장 등 각 30개 점포 시행</li> <li>- 시장 환경디자인 개선사업(50백만원) : 아치 상부 조형물 설치 및 셔터 디자인 개선</li> </ul> </li> <li>○ 보행네트워크 구축(1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동시장 앞 보행집중구간 아케이드 설치(100백만원)</li> </ul> </li> </ul>

- 그러나 도시재생계획의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르면, 2019년에는 세부 사업의 설계만 구상되어 있고, 본격적인 착공은 2020년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처럼 예산편성과 집행 계획 간에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추경 편성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 또한, 경동시장 앞 보행집중구간 아케이드 설치는 해당 구역이 제기동 도시환경정비구역(제1-2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아케이드의 설치와 같은 증축은 불가능하므로 추경 예산의 필요성을 상실하게 됨.

**사.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별설명서 281쪽)**

-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기정예산 14억 5천 8백만원에서 5억 6천 7백만원을 감추경하고자 하게 됨.

### 〈표23〉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297,000) 891,000	(x486,000) 1,458,000	(x-189,000) △567,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97,000) 891,000	(x486,000) 1,458,000	(x-189,000) △567,000

-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로 선정된 이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만 18~39세 이하 서울지역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 1인당 인건비 200만원, 기타지원비 25만원으로 총 225만원을 최대 2년간 3:6:1(국비:시비:자부담)의 비율로 지원함.
- 2018년 5월, 정부 예산을 편성(6개월, 약 60명분)하고 국비를 교부하였으나, 실제 근무가 11월부터 시작되어<sup>13)</sup> 예산 현액의 28%인 2억 1천만원만을 집행하고, 4억 4,681만원을 명시이월했음.

### 〈표24〉 2018년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29,000	208,575	446,807	49,078	행안부에서 정부 추경을 통하여 6개월 분의 예산을 교부하였으나, 서울시 추경 이 9월에 이뤄졌고 사업 선정에 2개월 가량이 소요됨

13) 서울시 추경이 9월에 이뤄졌고, 사업선정에 2개월 소요됨.

- 이처럼 사업시행이 저조하자 행정안전부는 2019년 국비 배정 예산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응해 시비를 감추경하게 되었음.
-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양극화, 고용불안,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경제조직으로 사회적경제가 각광받고 있고, 서울시 역시 3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2.0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로 지원된 예산을 적기 집행하지 못해 감추경하는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주의해야 할 것임.

#### 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사업별설명서 284-299쪽)

-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분야를 일자리창출<sup>14)</sup>, 사업개발비<sup>15)</sup>, 지역특화<sup>16)</sup>, 사회보험료 사업<sup>17)</sup>으로 나누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다양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추가 예산 배정에 따라 매칭금액 85억 1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14)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최저수준 인건비와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75:25(국비:시비)의 비율로 지원

15)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을 대상으로 브랜드, 로고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R&D) 등의 개발비를 지원하며, 7:3(국비:시비)의 비율

16)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육성을 위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사업으로 7:3(국비:시비)로 지원

17) 인증 사회적기업에 기업 당 50명 한도로,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9.65%)를 7:3(국비:시비)로 지원

### 〈표25〉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총 4개 사업	(x15,664,000) 21,482,080	(x9,434,000) 12,966,080	(x6,230,000) 8,516,00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x10,506,000) 14,009,000	(x6,467,000) 8,623,000	(x4,039,000) 5,386,00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개발비)	(x2,100,000) 3,104,080	(x1,820,000) 2,704,080	(x280,000) 400,00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지역특화)	(x418,000) 597,000	(x292,000) 418,000	(x126,000) 179,00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x2,640,000) 3,772,000	(x855,000) 1,221,000	(x1,785,000) 2,551,000

- 2018년 결산내역을 보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역특화 사업, 사회보험료 사업은 100% 예산을 소진했고, 사업개발비 사업 또한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했음.
- 이는 이 사업에 대한 행정수요가 매우 높는데 반해, 편성예산은 부족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부족예산의 연례적인 추경 편성보다는 본예산에 필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임.

### 〈표26〉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최종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x5,716,000) 7,621,000	(x5,716,000) 7,621,000	(x5,716,000) 7,621,000	(x-) 0	(x-) 0

(단위 : 천원)

사업명	최종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개발비)	(x1,680,000) 2,493,800	(x1,680,000) 2,493,800	(x1,680,000) 2,487,010	(x-) 0	(x-) 6,79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지역특화)	(x292,000) 418,000	(x292,000) 418,000	(x292,000) 418,000	(x-) 0	(x-) 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x878,000) 1,254,000	(x878,000) 1,254,000	(x878,000) 1,254,000	(x-) 0	(x-) 0

- 서울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사업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해, 추가 국비교부가 결정되었음.
- 그러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보험료 사업의 경우는 재정자립도 기준에 맞춰 예산을 교부받고 있어, 사회적 경제 수요가 높은 서울시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불합리한 국고 보조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어야 하며, 적정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이 요구됨.

담당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